



#스크류캡

‘2대 패트리샤 브라운에게 헌정하는 최상급 프리미엄 레인지’

브라운 브라더스 패트리샤 샤르도네

Brown Brothers Patricia Chardonnay

지역	호주 > 타즈마니아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3℃		
테이스팅 노트	열은 황금빛, 레몬빛 가장자리를 띄며 시트러스 아로마에 캐슈넛, 말린 무화과, 서양배의 향기로운 향과 복숭아, 살구 은은한 오크터치, 바닐라의 여운이 감미로운 와인이다.		



제품설명



60여년 동안 브라운 브라더스 가문과 비즈니스를 이끌던 2대 패트리샤 브라운의 이름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와인이다. 브라운 브라더스가 소유하고 있는 재배지에서 가장 최상의 구역 (Block) 을 선별하고 만들어지는 레인지로 각각의 품종에 맞추어 각기 다른 시기에 수확을 진행하고 블렌딩을 진행한다. 브랜드 런칭 후 1년 뒤인 2004년 패트리샤 여사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를 기리며 최상급 와인만이 패트리샤 레이블 아래에 최고의 빈티지의 해에만 생산된다. 오크통에서 발효진행하며 원액의 20%는 젖산 발효 과정 후에 약 9개월 동안 프랑스산 오크에서 숙성 (원액의 32%는 새오크통, 40%는 1년 사용)을 진행한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코리아 와인 챌린지 Korea Wine Challenge Gold
2019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3점
2015빈티지 디켄터 Decanter 88점

와이너리



호주 빅토리아 지역에서 1889년 와인생산을 시작하며 현재 125년의 역사를 간직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2015년, 2016년 2년 연속 Austailan Drinks Awards에서 호주 국민이 사랑하는 와인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으며 호주 내수 시장 모스카토 점유율 (35%) 1위, 호주와인 시장에서 Top 10 브랜드로 손꼽힌다. 브라운 브라더스의 모스까또, 시에나 등 후르티&스위티 와인은 호주의 젊은 소비자층이 가장 먼저 접하는 와인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에서 높은 판매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는 브라운 브라더스의 4대 후손인 '캐서린 브라운'이 수석 와인 메이커로서 스위트한 와인부터 드라이한 와인까지 약 60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각국에 선보이고 있으며 가족의 역사와 계승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